

'96 서부지구여대협 여성학교

- 침묵을 깨고 당당히 일어난 한반도의 딸들 -
(일본군 위안부 자료집)



일 시 : 1996년 6월 5일

장 소 : 홍익대학교

주 최 : 서여대협 산하 서부지구 (감신대, 경기대, 명지대,
연세대, 홍익대)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그대 조선의 십자가여

- 장 정 임

뉘라서 그대 피물은 전신을 씻어
 그대 찢긴 심장을 기워
 온전히 잠들게 하라
 조국보다 먼저 짓밟히고
 해방보다 먼저 잊혀진
 역사의 눈물꽃이여
 왜놈의 밭짓개 군수품으로 농멸된
 박꽃 같은 그대
 뉘라서 그대 원혼을 잠재울 수 있으리
 슈생야에 속아
 황국보은 하라는 여성지도자의 연설에 속아
 세탁부 재봉사로 떠난, 김서방 박서방의 딸
 호카이도 오끼나와 타이 파푸아뉴기니에서
 하루에도 수백 번 농육된 그대의 여성 그대의 인권
 옷 벗겨 내쫓기고 절벽에서 투신할 때
 어머니 어머니
 피땀히게 불렀건만
 그대 조국도 어미도 아비도 오라비도
 그대 제삿밥 한그릇 없이 오십년 구천을 헤매었구나
 그대 이땅에 서럽고 아픈 십자가여
 짓밟힌 들꽃으로 다시 일어서 피어나
 부끄럼에 한스런 우리를 일으키고
 배반에 치떨리는 조국을 어루만지는가
 치렁한 머리 눈매 순한 열여섯 꽃다운 처녀가 아니라도
 이제는 돌아와 편히 쉬소서
 우리의 든든한 무릎을 드리리니
 식민지 여성으로 더 이상 농육되지 않도록
 오늘 평화의 작은 비를 세우리라
 그대는 언제나 순결한 우리의 어머니
 이제는 고이 날개를 접고
 이제는 더 이상 헤매이지 말고
 편히 쉬소서 편히 쉬소서
 그대 조선의 십자가여
 조선의 눈물꽃이여.



'96 서부지구 여성학교 일정

- 침묵을 깨고 당당히 일어선 한반도의 딸들

제1부 (2시-5시)

일본군 중군위안부의 증언과 진상에
관한 비디오 보기
권희순목사님과 만남
(정신대문제아시아연대위원장)
즐거운 대화의 시간

제2부 (6시-8시)

연극 -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

전 시

사진, 엽서로 보는 조선인 중군위안부

글 심는 순서

여는 시

여성학교 일정

서부지구의장님 인사말

제2기 전여대협, 정신대 투쟁의 선봉에 서다!

기획글 I

왜 민간위로기금을 반대하는가

군위안부의 실상

정서운 할머니의 증언

자원봉사자와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기획글 II

전쟁과 여성

제2의 정신대, 기지촌 여성

쉬어가는 자리

우리들의 두 눈에서 시작된 영상강의

수요집회는 끝나야 한다.

연극소개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

참고자료

배워봅시다

전여대협정군가





첫번째 서부지구 여성학교를 준비하며...

올해로 전여대협이 출범한 지 2년이 됩니다. 오랫동안 여학생회의 사업들이 학교별로 잘 진행이 되고 많은 성과를 가져왔지만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아내고 한 목소리로 모아내는 과정이 많지 못했습니다.

이번 서부지구 여성학교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의 극복을 첫번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대중들과 이야기 하기보다는 각 학교에서 진행이 되었던 사업들을 한곳으로 모아내고 총화하는 장으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여대협으로 묶여 나갈 수 있는 시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구차원의 대중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첫번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미비한 점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이렇게 한걸음씩 지구여대협으로 우리의 힘들들을 모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전여대협은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5월 29일에는 지방에서 상경을 하여 우리의 큰힘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대동제 등의 대중사업 공간에서 서명을 받으며 학우들과 정신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갔습니다. 이번 여성학교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한 곳으로 모아낼 것입니다.

여성학교에서 안아간 고민거리를 앞으로는 여학생회라는 공간 속에서 풀어나가고 지구여대협에서 함께 고민 하겠습니다. ✕

서부지구 여대생대표자협의회 의장 김 은 청



제2기 전여대협, 정신대 투쟁의 선봉에 서다!

제2기 전여대협 총노선

조국의 운명을 개척하는 자주적 청년여학도여!

낙관적 신심으로 무장하고

투쟁으로 전진하는

여학간부로 일떠서

여학우대중에 근거한 여학생운동의 정형장출로

전여대협 강화하고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 투쟁과

반미, 반김 투쟁 전면화로

민족자주권을 회복, 민족대단결의식을 고취하여

통일조국건설의 길, 인간해방의 한길로 달려가자. ✕

제2기 전여대협은 96년 중심투쟁의 방향을 정신대 문제 해결투쟁으로 잡고 있다.

정신대 문제는 민족, 계급, 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총체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1. 투쟁의 의의

- 1)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식민지 조국의 역사를 끝장내고 민족자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다.
- 2) 민족수난사는 여성의 수난사이다. 제2의 정신대를 끝장내고, 성의 침탈을 막아내는 길이다.
- 3) 남과 북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투쟁으로 민족대단결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2. 투쟁의 목표

- 1) 정신대문제를 외면하고 민족의 요구를 무시하는 김영삼정권을 타도하자.
- 2) 남북 공동투쟁으로 민족대단결의식을 고취하자.
- 3)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고 일본이 UN의 권고안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며 아시아 여성들과 연대 투쟁한다.



왜 민간위로기금을 반대하는가

- 정신대 자료집 V / 아시가와 이즈코(성과 천황제를 생각하는 회), 양영지(제일교포), 김경희(정대협총무) 세분의 글에서 발췌 -

1. 민간기금 결정까지의 경위와 현재

민간기금은 94년 8월 31일, 무라야마 수상담화에서 '국민참가의 길'이라고 시사하고 12월 7일에 여당의 '중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중간 보고에서 이 안을 발표했다. (같은 날 사쿠라이 환경청 장관이 '일본은 침략전쟁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는 그 덕에 유럽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되었다.'고 망언을 했던 것은 실로 상징적인 사건이다.)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개인보상은 하지 않으며 정부의 출자금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로서 실질보상의 길도 부정당했다.

작년만해도 난징대학살은 사실무근의 조작된 것이며, '위안부'는 '당시의 공장, 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군, 영국 군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나가노 법무대신의 망언,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의 전쟁은 침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떤지 미묘하다.'고 하는 현 하시모토 통산대신의 망언 등이 연속해서 있었다. 또한 침략전쟁을 긍정, 찬미할 목적으로 작년이래 예히메, 시가 등 19현 의회가 전사자에게 '추도'와 '감사'의 뜻을 표명하는 결의를 잇따라 채택하고, 올해 1월 31일에는 자민당 143명의 의원이 '국회사죄결의'에 반대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있다. 조선인 여학생이 치마저고리를 찢긴 사건도 빈발하였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의 침략전쟁,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에의 잔학한 갖가지 범죄에 관한 무반성, 무자각한 남성들이 전후에도 권력자로서 계속 있다고 하는 특이한 역사를 걸어온 일본은, 연합군의 점령이 끝남과 동시에 아시아의 피해자에게 보상하기는 커녕 침략전쟁을 추진했던 군인에의 연금(恩給)등을 부활시켜 그 액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95년도 예산에서는 일본의 전상병자에 대해서는 1일 평균 551만 4천엔, 전몰자(사망자) 1인 평균 187만 8천 900엔으로 지급액이 인상되었으며 그의 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형제자매 등의 유족 151만명에 대해서 특별조위금 40만엔의 지급이 결정되었다.

'위안부'문제해결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은 국가에만 있지 않고 국민에게도 있다고 하여 지금까지 양심적이었던 지식인마저 민간모금 구상실현을 위한 선동자 노릇을 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우호 기금'(가칭)이라는 '민간기금'의 골격을 구상 중에 있다. 일본 적십자사에 본부를 두고 일본의 저명인사들을 발기인으로 하여 4월부터 10월경까지 모금을 하고 현지 협력단체(한국에서는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도요타를 비롯한 열대여섯개의 대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기금을 내놓고 있다.

정부출자금은 사무경비, 홍보경비, 인건비 등에 한하며 일전이라도 피해자 개인에게 안가도록 철저히 구좌를 구분하고 명칭도 '중군위안부'라는 말을 꺼리고 있듯이 일본 정부가 전상 규명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계략 속에서 내은 대안인 것이다.



2. '민간 기금'을 가능하게 한 요인

① 일본 정부의 '개인보상할 수 없는 논리'와 관료의 두터운 벽

소위원회는 중간보고서에서 '왜 폭넓은 국민참가의 길을 구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설명하고 있다. '일본 군'위안부'문제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전쟁에 관한 배상, 재산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로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미국간의 평화조약, 그 관련조약 등에 따라 국제법상 외교상 성실히 대응해 왔다. 그러기 때문에 도의적 입장에서 국민참가의 길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개인보상할 수 없는 논리'의 골격은 이 문제는 다른 전후보상문제와 같이 국가간 조약으로 해결된 문제이므로 국제법상 외교상으로도 할 수 없다는 관료의 논리이다.

② 반민족적 한국 정부의 자세

1993년 8월 4일, 한국정부는 제2차 조사결과 발표와 고오노 담화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뜻을 표명하였다고 평가하고, 금후 외교문제화 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상은 필요없으나 전상규명은 철저히 하라'는 김영삼 대통령 발언을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가 보상은 필요없다고 하니 못한다'라고 왜곡하여 개인보상을 안하는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 한국의외무부에서도 '피해자의 개인보상 요구까지 포함 안한다'라고 표명(93년 3월 18일 아사히신문)하는 등 한국 정부의 반민족적 자세는 일본 정부의 '개인보상할 수 없는 논리'를 보조하고 있다.

외교문제화 안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관자적 입장은 일본 정부에게 제멋대로 언동할 수 있는 사인을 준 결과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결국 이 문제의 최대난관인 한국 정부와의 외교절충이 없어진 결과 유엔 인권위원회와 ICJ보고, 권고의 배상요구, 책임자 처벌, 중재재판을 요구하는 운동 등을 무시하고, 관 주도 여당내 정치바란스를 고려한 국내조건만으로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린 것이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이었다.

3. 민간위로금을 반대하는 이유

① 관련국과 피해자들의 신뢰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무라야마 일본 총리가 발표한 전후보상안은 적어도 피해 당사자인 한국과 아시아의 주변국가들이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만큼 이행되어야 한다. 보상의 의미를 넘어서 배상의 태도여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배상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얼마만큼 진실하고 성실하게 과거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는가의 태



도에 달려있다.

진실된 사죄는 국회결의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거 일본수상들이 공식석상이나 혹은 사적인 모임에서 과거 전쟁에 대한 사죄를 표명했지만 개인의 사죄는 내각의 각료들에 의해 도전받거나, 부인당하여 왔다. 사죄는 일본국회의 결의를 통해 일본전체의 사죄로 표현되어야 한다.

②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야만적 행위는 국제법상 비인도적 범죄이며 전쟁범죄이다. 이 범죄는 시효가 없으며, 조약으로 면책시킨 바도 없으므로 일본 정부는 현재도 관련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 이 범죄는 부녀매매 금지조약과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ILO) 제 29호 조약 "육전의범 및 관습에 관한 협약" "노예제를 금지시키는 국제관습법규"에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 정부가 설사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할지라도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 방치하여 온 것에 대한 "불처벌의 책임"도 져야 한다. 구제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한 해결방법도 일본 정부가 피하는 마당에 전후 50년이 되도록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들을 방치하고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당해온 신체적, 인격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감안하여 개인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더구나 국제법률가협회는 94년 11월 22일 권고문을 내어 위안부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일본은 아직도 진실을 파헤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었다. 도대체 이 제도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계획되고 수행되었는지 명령의 책임소재가 어디인지 강제연행소녀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밝히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용당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배상은 할 수 없다고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을 준다니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공식적으로 묵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범죄성에 대해 민간인 스스로가 이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이제 끝이 났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오히려 아시아 피해국의 당사자들은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올바른 역사를 정립해 가도록 촉구해야 한다.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할머니들은 역사의 피해자이며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 있는 역사이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어떤 돈으로 위로할 수는 없다. 50년 전 일본군에 의해 짓이겨진 인권과 명예는 일본 정부로부터堂堂하게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범죄적 성격은 가리워지고, 돈문제 왜곡되어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캐나다에서 할머니 증언 집회 후 어느 일본 여성 기자는 "지금 내 딸들이 지금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하면서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그런데 일본뿐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세계 다른 나라에도 배상금을 청구할 것이



냐고 물으면서 싱가포르에 사는 친구딸이 한국 아버지들은 돈 받고 딸을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중국의 조공녀, 미군의 양색시, 오늘날 기생관광도 같은 문제로 보는 것은 일본 사람의 시각에서 본 한계이다. 세계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 임금이 기획하고, 입안하여 군대, 경찰 통제하에 점령지 13-18세의 소녀들을 20만 명이나 몰아다가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하면서 성노예를 삼다가 전쟁에 지고 떠날때는 어린 여성들을 유기, 살상하고 기록을 없애서 역사 속에서 폐기처분 했습니까?"

피해자들의 호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는 벌써 5년째 역사의 진실을 촉구하는 외로운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위로금은 너희 일본거지에게나 줘라. 먼저 용서를 빌라. 너희의 사죄야말로 우리의 명예가 회복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배상하라." 할머니들은 오늘도 절규하고 있다.



기획글 1-2

군위안부의 실상

정진성(정신대연구회회장, 덕성여대 사회학과 교수)

정신대와 군위안부

정신대는 당시 조선 내 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행해졌고, 남자, 여자를 모두 포괄하였던 것으로 근로 정신대를 비롯하여 인술 정신대, 보도 정신대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했다. 여성의 동원과 관련해서는 근로정신대와 종군위안부가 중요하다. '종군'이 자발성의 의미를 내포한다 하여 '군대위안부'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보아 '종군위안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진 개념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었다가 다시 위안부로 강제된 경우가 많고 당시 종군위안부 모집이 근로(취업)을 명목으로 한 사기적 방법에 의한 것이 많았으므로 이 두 범주는 당시 사람들에게 정신대라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인식되었던 듯하다.

(다음은 19명의 군위안부를 면접조사한 결과이다.)

위안부의 출신

8만에서 20만이라고 추정되는 위안부 중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여겨지고 있는 조선인 위안부의 연행은 어떠한 중에 이루어졌는가?

가정의 경제적 배경 : 대부분 극히 소규모의 자작농이나 소작농에서 자랐거나, 또는 농촌의 상점, 잡역 등의 일을 하는 부모에서 태어났다. 위안부로 연행 당하기 전, 식도살이를 한 사람이 5명이나 되고, 그밖에도 공장에 다니거나, 친척집에 얹혀 산 경우, 나쁜 환경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경우, 부모에 의해 팔린 경우 등 이들의 상황은 비참했다.

학력 :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4명, 교회 등에서 운영 하는 야학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나 보통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주로 사기를 포함한 강제동원의 방법을 사용하여 위안부를 징집하였으므로, 이로 일어날 사회적 물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로 하층계급에서 위안부를 연행해 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상태 : 1명만이 연행 전에 결혼한 경험이 있으나, 이 사람도 연행 당시에는 혼자 서울에 있었다. 나머지 전부 미혼이었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처녀였다고 판단된다. 유곽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나이 : 공장의 장부로 될 수 있는 연령은 일본에서는 18세 이상이고, 조선에서는 17세 이상



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군위안부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규정된 나이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행시 위안부의 나이는 매우 어려서 16세 미만이 4명이나 되고, 16세 5명, 17세 4명, 18세 2명, 19세 2명, 21세 1명, 22세 1명 등이었다.

조사결과는 나이제한의 규정이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거나, 규정은 있었으나 형식일 뿐,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조선에서 나이 어린 여성을 대대적으로 연행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원방법

군위안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동원되었는가의 문제는 현재 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일간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군문서 중에 위안부 동원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한 건도 없다. 다만 1942년 패전까지 육군대본부로부터 트럭과 군인 등을 제공받아 제주도에 와서 조선인 여성을 강제로 연행해간 吉田清治의 증언이 있다.

당시의 국제관례에 따라 「사기, 폭행, 협박, 권력남용, 기타 일절의 강제수단」에 의한 동원을 강제연행이라고 파악한다면, 본조사의 19명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강제연행의 범주에 들어간다. 본조사는 폭행, 협박, 권력남용을 한데 묶어 폭력적 수단에 의한 동원(4명)으로 분류하고, 그외에 취업사기(13명), 유괴납치(2명), 팔림(1명)의 경우로 나누어 보았다. 폭력에 의한 연행은 군인이나 헌병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군속으로 보이는 (국방색 군민복을 입은) 사람에 의한 경우도 있었다. 취업사기는 대부분 일본에 가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말로 유인한 경우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대부분 민간인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관(官, 반장)이나 정내회(町内會) 사람의 권유에 의한 경우, 군인과 군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유괴납치나 팔림의 경우도 민간인에 의한 경우가 많았으나, 군인이 한 경우도 있다. 민간인에 의한 연행의 경우에도 군이 배나 트럭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중도에 군인이 위안부들을 체계적으로 강간하는 등, 군대의 간섭과 통제가 가해졌다. 그리고 군이 위안부 모집과정에서의 소요를 막기 위해 모집을 맡을 자의 인선에 신중을 기할 것. 이라고 명기한 군문서로 보아, 모집을 할 민간인도 군에서 지정, 또는 허가한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은 위안부 모집에 전반적으로 군대가 체계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취업사기의 경우, 처음에는 사기로 유인되어 갔지만, 위안소에 와서는 협박과 폭력에 의해서 위안부의 일을 강요당했다. 유괴납치, 팔림의 경우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폭력에 의해 위안부의 일이 강요된 점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군위안부의 동원은 폭력에 의한 강제연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안소 생활

위안시간과 상대수 : 위안소 규정에는 부대별, 계급별의 위안소 사용시간표가 정해지고, 1인당 사용시간 제한도 규정되어 있었다. 본조사의 대부분의 전위안부는, 대체적으로 하루의 시간표와 군인의 계급별 출입시간과 사용시간 제한이 있기는 했으나,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전투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 평일과 주말의 차이가 심했기 때문이다. 군인이 많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문밖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옷도 벗지 않은 채 일을 보고 나가는 사람이 많았고, 이런 때에는 늦어지면 다음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재촉하기도 했다. 하루 상대수도 일정치 않아 적은 날은 10명이내, 많은 날은 50명이상, 셀 수도 없었다고 한다. 대개 밤에 잠을 자고 갈 수 있는 군인은 장교였지만, 사병이 몰래 들어와 자고 간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이러한 중에도 민간 관리인은 필수로 군인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안부 각자가 받은 군인 수를 막대그래프로 그리기도 하고 성적이 좋은 사람을 칭찬하기도 했다.

정기검진 및 위생상황 : 위안부에 대한 정기성병검사는 일본의 군위안소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본조사의 19명 중 4명만이 정기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거나, 정기검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나머지 15명은 모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혹은 위안소로 온 군의에게 성병검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본조사의 19명 중 7명이 성병에 걸린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성병이 걸렸을 때는 '606호'라는 주사를 맞았다. 2명만이 성병이 걸린 상태에서 군인을 받았다고 말했고, 나머지는 나을 때까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병 외에도 말라리아, 황달, 정신병, 밀이 붓는 병 등 갖가지 병에 시달렸으며, 이 병들은 지금까지 이들을 괴롭히고 있다. 임신한 경우도 2명이나 있다. 이중 한 명의 경우는 아이가 배 속에서 죽고, 다른 한 명은 아이를 낳아 고아원에 맡겼다.

잔혹행위 : 위안부들은 군인과 위안소 관리인으로부터 갖은 잔혹행위를 당했다. 월경 때도 군인을 받은 것은 대부분의 경우이고, 반항을 하거나 거부할 경우, 군인들의, 혹은 관리인의 포악한 행위를 견디어야 했다. 대부분의 전위안부들은 이때 당한 신체의 상처를 갖고 있다.

이름 : 본조사의 위안부 전원이 위안소에서 지어 받은, 혹은 자신이 지은 일본식의 이름으로 불리었다.

일 : 대부분의 위안부들이 군인을 받는 일 외에 자신의 팔래를 했으며, 이밖에 청소, 음식을 나르는 일, 풀 베는 일 등을 했으며, '국방부인회'의 띠를 두르고 훈련을 받거나, 황국신민서사를 외우는 일을 했다고 증언한 사람도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본조사의 19명 중 한 명은 위안소에 와서 처음에 간호보조일을 하다가 위안부의 일을 했고, 4명이 위안부 일을 하다가 나중에 간호보조 일로 바꾸어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실제로 군대 경영이든, 민간경영이든, 모든 형태의 군위안소의 위안부가 군간호원, 군대잡부와 함께 군대의 총괄적인 관할 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요금 수령 여부

위안소의 규정에는 군인들의 계급별로 사용시간에 따라 요금이 명기되어 있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금은 대부분 표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단 3명만이 군인을 상대한 대가로 돈이나 군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7명이 돈이나 군표를 군인에게 받아서 관리인에게 주었으나 한번도 정산해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고, 4명은 돈 또는 군표 관리는 관리인이 직접했다고 증언했다. 나머지 5명은 요금에 대해 일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귀환사정

본조사의 전위안부 중, 종전 전에 위안소를 떠나올 수 있던 경우가 8명이 된다. 이중 2명은 탈출한 경우이고, 1명은 성병이 심해 송환되었고, 나머지 4명은 각별히 가까웠던 장교의 도움으로 귀국 증명서를 받아서, 그리고 한 명은 위안소 주인과 함께 귀국할 수 있었던 경우이다. 이들 중 한명은 다시 위안소로 가게 되어 전부 12명이 종전 후에 귀환했다. 패전시 일본군대가 위안부를 데리고 귀향한 경우는 드물다. 위 12명 중 1명만이 일본군인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위안소를 떠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느날부터 갑자기 군인들이 위안소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인들이 도망가고 유기된 위안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귀국했거나, 미군 수용소에 있다가 귀국했다.

귀환 후의 생활

귀향 후 전위안부들은 위안부였다는 자각지심, 위안부 생활에서 얻은 병, 주위의 사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했다. 본조사의 19명중 6명이 결혼했으나, 그중 5명은 재취였으며, 6명 모두 결혼에 실패했다. 8명이 동거 또는 둘째부인으로 가정을 가져본 경험이 있으나 대부분 실패했다. 5명은 전혀 결혼하지 않았다. 현재 2명만이 자신이 낳은 자식과 함께 살고 있으며, 1명이 수양아들과, 다른 한명이 데려다 기르는 손주와 함께 살고 있다. 나머지 15명은 모두 혼자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또 건강면에서 매우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



정서운(鄭書雲) 할머니의 증언

나는 경상남도 하동에서 부자집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나를 일본학문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일본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교사를 통해서 한자와 한글을 배웠다. 아버지는 창씨 개명도 끝까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이 전쟁무기로 만들기 위해 낫그릇을 공출하게 했는데, 아버지는 그것도 하지 않고, 밤에 남몰래 집에서 일하는 일꾼 몇을 데리고 논을 깊이 파서 그곳에 낫그릇을 묻었다. 그런데 그것이 들통나서 아버지는 경찰서에 끌려가 유치장에 갇혔다. 매일 면회를 갔지만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 박 구장(현 이장)이 집으로 와서 내가 일본 방직공장에 가면 아버지는 석방될 수 있다고 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는다는 협박이었다. 그때 내 나이 15세였다. 악양면 면장팔도 함께 갔는데, 그 면장은 주재소 소장으로부터 악양면에서 처녀공출량을 할당받자 소장의 따귀를 때리고 사표를 냈다. 그 이유로 면장의 딸도 나와 함께 끌려갔다.

우리는 부산에서 큰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였다. 내려보니 보초가 있는 큰 창고에 양 천명정도 되는 처녀들이 갇혀있었다. 그 곳에는 그런 창고가 여러 개 있었다. 나는 그 곳이 공장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길게 뿔아내린 머리를 잘랐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김으로 쓴 주먹밥을 받았는데, 아버지 생각과 집을 떠난 두려움에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3일정도 지나자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 때 얼마나 김밥을 질리게 먹었는지 지금도 김밥은 물론 김도 보기 싫다.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15일 정도 지나자 변호대로 우리를 부르더니 차례대로 굉장한 큰 배에 태웠다. 그 배에 수천명의 여자들이 함께 탔다. 대만, 광둥, 태국, 방콕, 사이공,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내렸다. 그리고는 그 곳에서 뉴기니아, 수마트라, 마랑 등지로 배치되었는데, 보내지기 전에 자카르타 육군병원에 모두 데리고 가서는 자궁 속에 뭔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건지 아랫배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아팠다. 아마 약 3일동안 하혈을 했던 것 같다. 하루를 쉬고 다시 배를 타고 가는데 심한 통증과 하혈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다.

나는 23명 정도의 여성들과 마랑의 육군부대에 배속되어 그 부대가 이동하는 대로 따라다니며 운명을 같이 하였다. 우리는 부대 안에서 살았으며, 식사도 군인들과 같은 식당에서 함께 하였다.

위안소는 대대마다 하나씩 있었고, 한 위안소에 여자가 20-30명씩 있었던 것 같다. 평소에는 여럿이 한 방을 썼는데, 군인들이 올 때는 포장을 친 각방을 이용하였다. 하루 평균 50명 이상의 군인을 상대해야 했다. 50명 이상을 상대하다 보면 지치고 기절할 때가 있다. 그러면 물을 끼얹어 정신을 차리게 한 후 다시 군인을 상대하게 했다.

성기가 부르트고 도저히 아파서 걸음도 걸을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군인을 상대할 수 없게 되면 주사를 팔에 놓아 주었는데 알고보니 마약주사였다. 토요일에는 100명도 넘는 군인들을 아침 9시부터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시작하기 전부터 4-5대의 마약주사를 맞았다. 그래서 지금 양쪽 팔에는 흉덩이로 뭉쳐놓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피가 잘 통하지 않고 팔을 잘 사용할 수가 없다.



10시 이후에는 장교들이 들어와 술을 먹고 폭력을 휘두르고 자기들 뜻대로 옹하지 않는다고 칼을 찌르고 해서 온 몸에 아직도 칼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한 장교가 칼자루로 팔을 쳐서 뼈가 으스러져 지금 내 뼈가 아닌 다른 뼈가 팔 속에 있다. 가슴에는 아직도 칼자국이 크게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리고 담배불로 지져서 아래 배 양쪽에는 큰 흉터가 남아 있다.

그렇게 지낸지 한 1년정도 지났을 때 사는 것보다 죽음이 더 나을 것 같아 죽을 결심을 했다.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근결합'을 한알 한알 모았다. 40알이 모이자 한입에 넣었다. 그리고 천정이 기우뚱 하더니 그 뒤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중에 깨어났을 때 내 주변에는 동료들이 내려다 보고 있었다. 2일동안을 누워 눈, 코, 입, 귀로 피를 쏟으며 기절해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때 후유증으로 소화제가 아니면 지금도 음식을 소화해 낼 수 없다.

당시 위안소에서 나는 기꾸포(菊子)로 불렸다. 거의 속옷은 입지 않았고, 먹는 것이라고는 안남미밥에 콩나물 된장국 정도였다. 군위안소에서 가끔 중국인이거나 인도네시아 민간인을 불러 부대 내 청소와 빨래 등을 시키는 것을 보았다. 그즈음 23명의 여성들 중 14명은 죽고 9명만 생존해 있었다. 일본군인들은 여성들이 몸이 병들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죽여버렸다.

그러면 와중에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지만 몰랐다. 패전이 임박하자 우리를 방공호에 가둬서 몰살시키려고 했지만 양심적인 일본군인이 한국인 군속에게 얘기한 덕택에 연합군에게 인수되었다.

집에 도착해 보니 마치 귀신이 나오는 흉가 같았다. 이웃사람들의 얘기로는 아버지는 결국 석방되지 못하고 옥사하셨고, 어머니는 목매달고 자살하셨다고 했다. 나 혼자였다. 반겨주는 이도, 붙잡고 마음껏 울 수 있는 이도 없었다.

그런데 이미 그 때 마약중독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결심을 하고 마약을 끊었다. 7개월이 걸렸다.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이와 잇몸이 모두 망가져 버렸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신문에 날때마다 그것을 오려서 모았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런일 없다,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망언들을 뉴스와 신문을 통해 들었다. 나는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신고를 했다. 지금까지는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끄러워 해야 할 당사자는 일본 정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부끄러워 하기는 커녕 범죄를 인정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죄도 배상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민간모금을 해서 우리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아픈 과거, 생각만 해도 온 몸이 떨리고 꿈마다 나타나는 그 악몽같은 과거를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40년의 침묵을 깨트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일본이 바른 역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정당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상을 받는 즉시 돈을 찢어 버린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배상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야 내 명예도, 내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며 전쟁터에서 총알받이로, 혹은 병에 걸려 희생당한 우리 동료들이 고이 잠들 수 있을 것이다.



전쟁과 여성

‘조선인 일본군 중군위안부’는 역사상 유례없는 성노예로서 일본군국주의의 악랄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어느 민족,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존재해왔고 베트남전에서는 우리나라 군인 역시 똑같은 만행을 베트남 여성들에게 저질렀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 다음 글은 수잔 브라운 밀리의 『성폭행의 역사』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

● 전쟁 게임의 다양한 '수단'으로서의 성폭행

전시예 인간이-남성들이 성폭행에 대하여 나타내는 태도는 흥미있는 것이다. 전시라는 긴박한 상황아래에서도 의심할 나위없이 강간 사건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겁탈은 종교전쟁에서도 수반되었다. 기사와 순례자들이 첫 십자군 원정에서 콘스탄티노플을 향해 진격했을 때 겁탈하는 일에 시간을 쏟았었다. 강간은 혁명 전쟁에도 뒤따랐다. 1780년 7월 22일 자 조지 워싱턴의 공식문서 속에는 제7 펜실베이니아 연대에 소속된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자가 파라무드에서 추행을 범한 대가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전쟁에 있어서의 강간은 그 전쟁 자체가 '정의롭다' 혹은 '정의롭지 않다'는 하는, 이른바 전쟁의 정의에 의하여 구속받지는 않는다. 파괴, 약탈을 일삼는 독일군인들이 1차세계대전 당시 벨기에로 진격했을 때 겁탈은 테러의 한 방편이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군대가 베를린에 입성했을 때 겁탈은 보복의 한 수단이었다. 성폭행은 국적 혹은 지리적 위치 따위와는 상관없이 전시예 번성하는 속성을 가진다. 파키스탄 군대가 방글라데시에 쳐들어갔을 때 성폭행은 고삐풀린 말처럼 견줄 수 없이 일어났다. 파키스탄 외상이 훗날 언급했듯이 '유감스럽게도 성폭행은 통제를 잃은 상태'였다. 미국 GI들이 베트남의 산악지대에서 수색 활동과 파괴활동을 벌이고 있을 때의 겁탈은 무로와 '싫증'을 덜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현대에 와서 강간은 전쟁의 국제조약에 의하면, '범죄적 행위'로서 불법화되어 있다. 미국 통일군법120조에 의하면 강간은 사형 혹은 종신징역으로 처벌되게끔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은 전쟁의 상습적인 행위로서 지속되고 있다. 살인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 혹은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지지 받는 영웅적인 행위로 간주될 때,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허용될 수 없는 다른 형태의 폭력과의 차이점이 없어지고 강간은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필수불가결한 게임의, 불행하지만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논의되어 왔다.

● 전쟁은 남성 확인의 호기

이러한 기준에 의한다면 여자들은 어린이들, 가옥, 개인재산, 교회, 제방, 물소, 혹은 다음 해의 수확물과 더불어 폭력에 희생된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유감스러운 희생자들, 지극히 우발적인, 그러나 결코 피할수 없는 사상자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전쟁에 있어서의 강간은 표적을 빗나간 폭탄과는 질적으로 다르

● 할머니돕기 자원봉사단을 모집합니다.

정대협 생존자복지위원회에서는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단을 모집합니다. 할머니들이 병원에 가실 때 함께 가 주실 분, 혹은 간호를 해 주실 분, 혹은 정기적으로 할머니들을 방문해서 위로해 주실 분, 차량으로 봉사해 주실 분 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정대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대협 운동이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간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것도 국내외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협은 여러 관심있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본회 전상규명활동, 유엔활동, 대 일본정부 활동, 아시아 연대활동, 기타 사무활동 등을 돕기 원하시는 분은 1만원 이상 아래 은행구좌로 입금하신 후 본회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조흥은행 308-01-158087 정대협
국민은행 813-01-0182-492 김신실

† 정신대 할머니들을 돕기 원하시는 분은 1만원 이상 아래 은행구좌로 보내주신 후 본회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조흥은행 325-01-150299 이미경

정대협은 본회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회원들께 본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와 활동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중정로 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305호

우편번호 120-012

전 화 365-4016

팩 스 365-4017



다. 그것은 비인간적인 약탈, 방화와는 다르며 대량학살 혹은 신중히 계산한 폭행, 혹은 심문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고문과는 다르다. 강간은 전쟁의 징후 이상의 것이거나 아니면 전쟁의 폭력적 과잉의 증거 이상이다. 전시의 강간은 용이한 변명이 뒤따르는 용이한 행위이다.

전쟁은 여자를 경멸할 기회를 줌에 있어서 심리적 배경을 완전히 제공해준다. 군대의 남성적인 것, 바로 그 자체는 남성들의 수중에 독점되다시피한 무기들의 야만적 힘, 인간을 무기에 묶는 정신적 구속력, 주어진 명령의 남성다운 기율과 수행되는 명령, 단순한 논리의 위계질서적 지위체계는 남성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즉 여자는 중요한 세상에 별볼일 없는, 이른바 한계적 존재이며 중요한 행동의 세계에 있어서 '수동적인 방관자'라는 평소의 생각을 남자들은 확인한다.

전시에 강간을 자행하는 자들은 대개 평범한 병사들이다. 가장 배타적인 남자들만으로 구성된 집단에 입대함으로써 평범한 신분을 벗어버린 자들이다. 무기를 가지고 싸운 승리가 민간생활에서는 감히 생각조차 못했던 집단의 힘을 가져다 준다. 남자들에게만 전유된,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전쟁터이다. 여자가 없는 단면적 세계의 비현실적 상황이 제1차적 현실이 된다. 하나의 생명을 만들기보다 하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더 뜻깊은 것처럼 보인다. 손 안에 든 총이 힘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전쟁의 질병은 스스로 자라난다. 일정수의 많은 군인들은 새로 획득한 자신들의 우월성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자에게 그 우월성을 증명해야 하고 신과 타인에게도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승리의 이름 아래, 총의 힘 아래 전쟁은 남자들에게 강간할 묵시적 자유를 주는 것이다.

● 조직적인 검탈

전시에 여성에 대한 강간은 피해 여성의 육체에 대한 적대행위인 동시에 피해 여성의 남편 혹은 아버지에게 대한 적대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다. 강간이 있고난 뒤에 남편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흥미롭다. 인버워크의 피해 여성들은 불상사가 있고 난 뒤 9개월 동안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것은 남편들이 동의한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린당한 처를 외면하는 일이 한층 빈번히 발생했다. 최근에 방글라데시의 검탈당한 여자에게 대한 집단적 배척이 그 예이기도 한다. 전시 중에 검탈당한 처를 둔 남편들은 그 무시무시한 사건(강간)의 주요 책임을 자신들의 처에게 지우기도 한다.

역사를 꼼꼼히 읽지 않는 독자라 해도 성폭행에 대한 것이 역사에 언급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전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재빨리 간취할 것이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이른바 신중한 역사학자 역시 전시의 구체적 강간행위에 대해서는 애써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1차세계대전에서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시하의 강간에 대한 기록이 재차 강조되었다.



제2의 정신대, 기지촌 여성들

- 안일순,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에 의한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유린에 관한 보고 : 위대한 군대, 위대한 아버지> 중에서 -

지난 1992년 10월 28일 한국의 휴전선 가까이 미제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동두천시 보산동 한 방에서 우리나라 여성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발견 당시 죽은 윤금씨씨의 자궁에는 맥주병 2개가 꽂혀 있었고 국부 밖으로는 펄스볼라병이 박혀 있었다. 그리고 쇠로 만든 우산대가 항문에서 식도까지 27센티가량 꽂혀 있었으며 온몸에는 피멍과 타박상을 입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주한미군의 범죄는 지난 수십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종류도 다양하여 살인 강간, 강도, 폭력, 마약, 밀수, 사기, 교통사고, 암거래 등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한국정부가 지난 1988년 국회에서 밝힌 미군범죄의 연대별 현황 및 처리과정이라는 자료에 보면 1967년부터 1987년까지 20여년간 발생한 미군범죄는 총 39,452건으로 범죄에 가담한 수는 무려 45,183명에 이르며 이는 미군이 하루에 5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이러한 미군범죄는 주둔지역인 기지주변의 매춘굴목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기지촌이란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주지와 상권을 일컫지만 대개는 미군들과의 성거래가 이루어지는 섹스시장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한국의 군부와 미국과의 유착이 진행되면서 미국 군인들을 위한 군대창녀촌이 기지촌이 양측에 의해 암묵적으로 묵인, 지원되고 관찰,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정부는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해 놓고도 군대창녀집단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중간집단인 매춘클럽의 운영 포주와 펌주, 직업소개소 등에 대해서는 관대하였다. 더욱이 미군들을 위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여성들의 성병검진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정작 보군자인 미군들은 놔두고 자국의 여성들만 처벌하는 성병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정작 보군자인 미군들은 놔두고 자국의 여성들만 처벌하는 성병관리의 이중성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미군들의 성욕배출을 위한 서비스를 다하였다. 예를 들면, 미군들을 상대로한 클럽에 면세혜택이라는 특별배려를 하여주었고, 관광사업이라는 명목하에 클럽주인들의 해외연수도 시켜주었다. 미군에 의해 매춘여성이 강간, 죽임, 폭행을 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 수사한 번 제대로 못한채 미군측에 가해자를 넘겨주었다. 즉 양측이 하나 때문에 한미관계를 해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설사 여론에 몰려 한국재판정에 미군을 세운다 하더라도 두명의 여성을 죽인 미군에게조차 '우방의 군인임을 참작 무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부끄럽게도 지방유지와 행정관리(군수급, 경찰요원)들은 이러한 여성들을 한달에 한 번 강간에 모아놓고 '당신들은 애국자다. 우리를 지켜주러 온 미군들을 위안해주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다'라고 칭송하였던 것이다.

여성에 대한 군인의 성폭력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인권유린이다. 특히 군인이라는 남자들의 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하는 특별테러인 것이다. 힘이 지배하는 강대국의 논리 앞에서 미국병사들은 평소 감히 생각지 못한 집단의 힘에 의해 아메리카 군대의 위세에 힘입어 그러한 야만적인 행위들을 아무런 수치심이나 죄악감도 느끼지 않고 자행하는 것이다.



군대에 의한 강간과 매춘의 문제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개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식민지 전쟁, 제국주의, 약소국과 강대국, 군대와 여성에 관련된 문제이다. 미국군대가 한국여성들에게 가하는 살인과 강간, 성폭력, 지속적인 매춘행위는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저지른 성범죄와 필리핀, 베트남에서 가한 성폭력들과 매춘사업 등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물론 이에 대한 군인들의 항의가 있을 것이다. '여자는 자발적으로 몸을 팔러 들어왔고 나는 그 여자와 계약을 맺고 돈을 주고 샀을 뿐이다.' 라고. 그리고 '매춘과 강간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다! 강간이 강제행위에 의해서 여성의 성을 강탈하는 것이라면 매춘은 돈을 주고 여성의 성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강간과 매춘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오늘날 일본인들은 정신대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조선인 처녀들에게 당시에 '군표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또 주둔미군은 한국여성의 성을 사는 대신 '군표나 달러나 피엑스 물건을 주었다'고 말한다.

이는 여성의 성에 대한 착취행위, 즉 군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희생자인 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즉 강간행위를 매춘행위로 전환시키려는 가해자의 교활한 의도가 그 이면에는 도사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두 눈에서 시작된 영산강이

- 우리. 그리고 한반도의 영산강이

고정호

딸들이여, 잣나무 숲처럼 짙은
기상이여

오색단풍 아름답게 무르익은 지리산

그 숲에 떠오르는 솟아마 만큼이나
그대들의 붉기운 온누리 뜨겁게
이 땅은 다시 한 번 태어날 수 있으리
이 땅은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으리

남도땅 토말에서 장백산 그 너머
만주벌판이나 중국 산동성까지
아득한 철길 위에 부푼 사를 짓고
사흘 밤 사흘 낮 줄 달릴 수 있으리
겨레끼리 팔매질 끝낼 수 있으리
동족끼리 총부리 걸을 수 있으리
여전히 팔팔년 십일월의 대차보연
한 시대의 과오가 너엽처럼 휘날린다 해도
쇠고랑 소리 자욱한 한반도
통일이냐 해방이냐 자유냐는 낱말들이
물먹은 솜처럼 가라앉는다 해도
이이 동트는 새벽

문득 일어나 창문을 열면, 거기
잠들 수 없는 남도땅 하늘 아래
칸나꽃 같은 붉은 꽃대
백아흔네 대의 바라춤 속에 핀

오만사천 그루 붉은 꽃대
바라보는 일로도 가슴 두근거리
두 눈 가득 고이는 눈물 어찌라
눈에서 눈으로 유유히 물결치는
푸른 영산강 어찌라

우리들 두 눈에서 시작된 영산강이
동학의 바람소리 고요히 품었다가
사월혁명의 녀 힘차게 흔들었다가
오월민중항쟁 깊숙이 적셨다가
육십평화대행진 함성 높이 들어올렸다가
그대들 얼굴 씻는 강안에 닿아
여성해방 대장정을 가다듬는 이 아침
그러나 자매여

너 고통의 종교를 만들지는 말아라
너 자유의 우상을 만들지는 말아라
너 해방의 금관을 만들지는 말아라

남도땅 토말에서 장백산 그 너머
시베리아 벌판이나 중국 길림성까지
여성해방 싣고 가는 수레바퀴 되어라
너로 인해 한반도가 울었고
너로 인해 한반도가 죽었고
그리고 너로 인해 한반도가 부활했다 하리



수요집회는 끝나야 한다.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한 수요집회.

처음엔 단 두 사람 뿐이었다고 한다. 침묵을 깨뜨리고 증언하신 할머니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함께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1996년 1월 24일은 200차 수요집회가 많은 여대생과 여성단체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졌다. 수요집회의 회수가 늘어날수록 할머니들의 모습은 줄어들고 가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움과 활동이 깊어간다.

1996년 5월 29일 217차 수요집회는 제2기 전여대협이 주관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명의 여학우와 남학우들이 전여대협의 깃발 아래 모인 첫집회였다. 경기대학교에 모여 전여대협 진군가도 배우고 어느 지역 여대협에서 얼마나 왔는지 확인한 다음 일본대사관으로 출발했다. 이미 평소보다 많은 할머니들이 와 계셨고 우리를 보자마자 기뻐하시며 맞아주셨다.

죄를 짓고도 50년이 넘게 사과 한마디 없는 뻔뻔스런 일본에게 계란이라도 던져주고 싶었지만 일본대사관을 둘러싼 수백명의 우리 전경들 때문에 할 수 없었다. 대신 일장기를 태우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할머니들은 항의서한을 받으러 나온 젊은 대사관 직원에게 울분을 토해냈다. 억울함으로 부들부들 떨시며 아무말도 못하시는 할머니도 계셨고 어찌 이럴수가 있느냐며 마구 화를 내시는 분도 계셨다. 많은 여대생들이 함께 울었다.

종로일대를 한바퀴 돌고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세종문화회관으로 갔다. 그러자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백여명의 전경이 주위를 둘러쌌고 연행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열심히 구호를 외쳤다. '일본정부는 민간모금철회하고 법적 배상하라!' 20여분 후 해산하겠다는데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열명씩 내보내 주었다.

경기대로 다시 돌아와 올해 안에 꼭 정신대문제를 50만 여학우의 힘으로 해결하는 결의를 다지면서 집회를 마쳤다. 수요집회가 끝나는 그날을 기리면서...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

-극단 한강 제12회 정기공연작품-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 간도의 어느 군 진영. 켜켜이 갈라진 황량한 이국의 땅에서 새 여인이 자신들을 고향땅으로 실고 갈 트럭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패망과 조국해방 소식을 들은 그날 이후부터 그녀들을 괴롭히는 것은 귀향의 꿈만큼이나 커져 버린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삶의 흔적이다. 그녀들의 이름은 일본군 중군위안부, 소위 정신대라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고향에 가리라는 가슴 저미는 소망에도 불구하고 시집살이에서 쫓겨온 언니를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쫓으시던 아버지가 생각나서 꿈 속에서도 고향집 문앞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돌아서 버린 열 에닐곱의 어린 처녀...

"고향에 갈 수 없다. 차라리 이곳에서 죽을지언정 갈보질을 했다는 것을 알게 할 수는 없다." 중국군에게 아랫도리를 맡겨서 모은 꼬깃꼬깃한 돈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친구에게 건네주며 고목처럼 굳어 버린 여자. 그는 종살이하는 아버지 앞에 무일푼의 병든 몸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귀향의 꿈을 물어 버린다.

고통스런 자기 분열과 자기 인식 속에서 그들 중 단 한명만이 고국으로 가는 트럭에 오른다. "고향에 가더라도 날 반기는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와 수군거림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투명하지 않고 암담하기만한 미래라고 할지라도 싹틔줄 같은 생명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

'전쟁'으로 '정신대'로 인해 잃어버린 사랑을 '씻김'을 통해 다시 되찾게 되는 한 여인의 고국행으로 이 작품은 막이 내린다. 그 '사랑'은 꼭 살아남아 은폐된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로서의 죽어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에 대한 온당한 예우로서의 사랑이다.



참고자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증언집 I)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 편 / 한울출판사 / 1993

군위안부 당사자들의 살아 있는 증언집이다. 이 증언집에는 약 70여명의 국제 신고자 중 본인의 기억이 보다 뚜렷하고, 그 내용이 역사자료, 문서와 대조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19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증언을 정리, 기록하였다.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정신대연구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엮음 / 한울출판사 / 1995

중국 호북성 무한에 생존하고 있는 조선인 군위안부 10명의 눈물과 한 섞인 증언이 생생히 채록되어 있다. 아직도 흘러간 한국노래를 부르며 지난날의 고통을 잊지 못한 채 고국을 방문하는 것이 제일 큰 소원이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본 뿐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그분들을 버려두었음을 깨닫는다.

흰 웃고름 입에 물고

이토 다카시 사진, 기록 / 눈빛출판사 / 1994

(한국인 피폭자의 증언)이라는 사진기록집을 냈던 이토 다카시가 남북 중군위안부 15인의 증언과 백여장의 사진을 실어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한 책이다.

정신대 자료집 II (왜,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도전하고 있는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1992 / 145쪽

정신대문제에 대한 국제법 검토, 정신대문제의 실상, 한국 태평양 전쟁 희생자 문제, 전후보상, 활동일지, 신문보도자료 등이 실려있다.

정신대 자료집 III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1992 / 84쪽

정신대문제에 대한 최초의 아시아 연대회의 보고서이다. 두 분 할머니의 증언과 한국, 일본, 제일교포, 필리핀, 대만, 태국의 보고와 결의문, 사진, 참가자 명단 등이 실려있다. 각 나라의 활동과 입장, 피해여성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정신대 자료집 IV (강제중군위안부와 일본의 법적 책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1993 / 134쪽

일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각 나라의 변호사들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한일 정부 입장의 문제점, 일본의 책임 이행 방안, 유연을 통한 해결 방법, 국제적 차원의 해결 방법 등을 살펴본다.

정신대 자료집 V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1995 / 110쪽

'왜 민간위로기금안을 반대하는가'와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두 주제로 각국이 발표한 것들을 실었다.

「낮은 목소리 -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2」

감독 변영주 / 기록영화제작소 보임 / 1995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군위안부였던 할머니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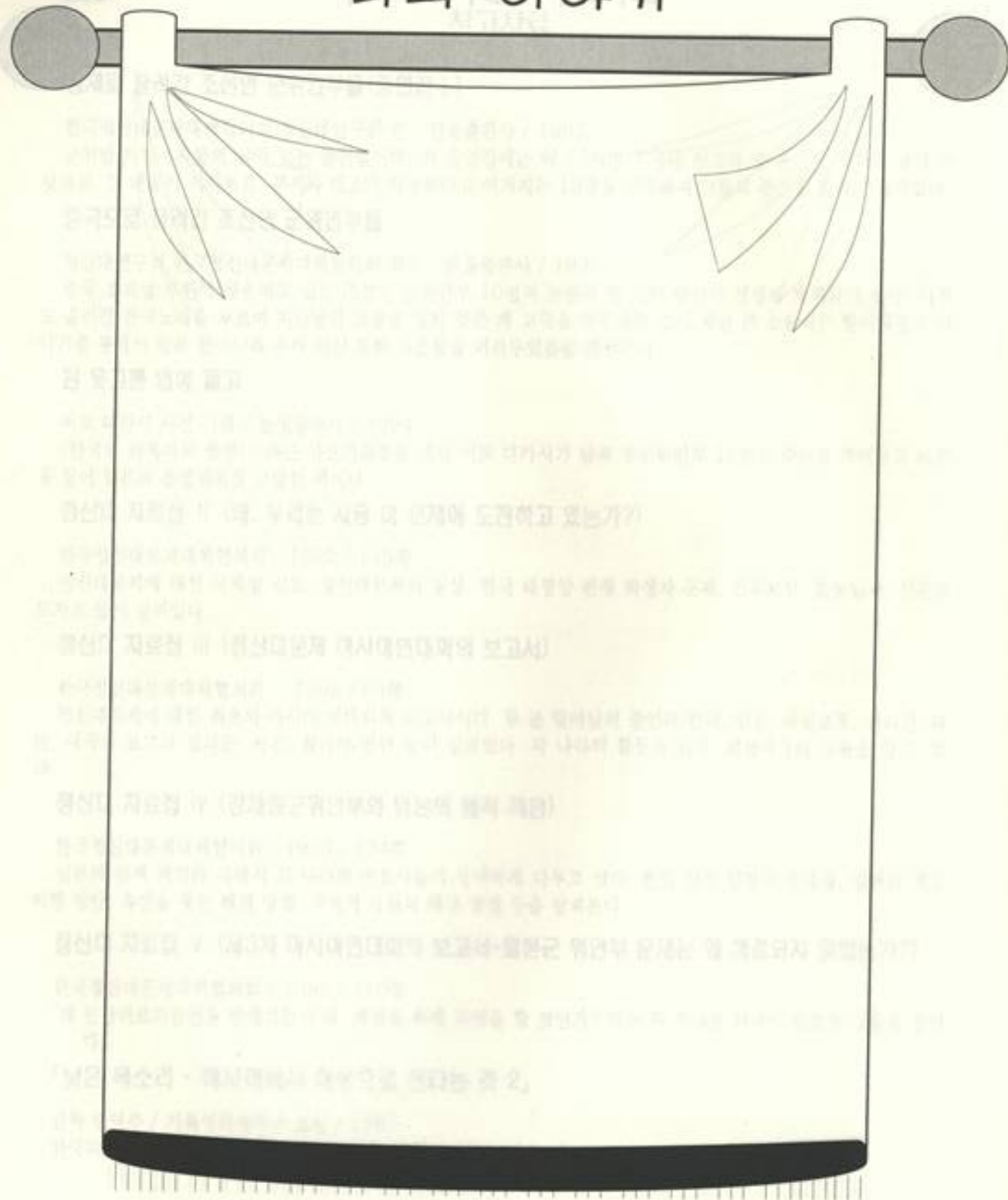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전여대협 진군가

일기

Am Em Am F Dm Bb Eb
서라·해방의 전사여 내조국의 부름이 다 전여

Am Eb Am Eb Am
대협 깃발을 높이 올려라 아 - 긴 국이 다 자라

G Eb Am Dm G C
스런 조국의 딸 그대 항일 여성전사의 후예여

Em Am Dm Eb
밤미 반독재의 성전에서 성복에 무릎서고라 당당

Am Ab Dm G C Eb
한 세상의 정반으로 조국의 역사를 개척하리라 전여

Am Dm Eb Am
대협 깃발을 높이 올려라 자주 민주 독립의 세상을 열자